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28호 백불사금동약사여래입상



하루 웃고 살기가

오시영

스스로 제 두 손 잘린 채
병든 이와 고통을 함께 해온
당신, 그대의 천년 미소로도
세상은, 아직, 아파합니다

하루만 더, 그대가
그 미소 그대로 지어 준다면
병든, 이 아이의 어머니
눈물이, 꽃향기 되겠지요

합장

하루 웃고 살기가.....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오시영 작가는... 전남 여수 출생. 1998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상생 통한 이해 종교평화 디딤돌”

7대 종교지도자 마곡사·동학사 등서 대화

한국을 대표하는 6개 종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교간 평화를 위한 상호간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16-17일 공주 마곡사·동학사 등에서 7대 종교지도자를 초청해 전통사찰 순례 및 불교문화체험, 학인스님들과 종교지도자간 대화 등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가톨릭 김희중 대주교, 한국기독교협의회(NCKK) 김영주 총무, 원불교 김주원 교정원장, 유교 최근덕 성균관장, 민족종교 한양원 회장 등 7대 종교 수장들이 참석했다.

종교지도자들은 16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환담 후 17일에는 김구 선생 유적지 탐방, 전통차 시음, 동학사 강원 학인스님들과의 대화 및 사찰전통음식 체험, 대전 현충원 참배 일정 등을 소화했다.

이번 순례의 백미는 종교지도자와 동학사 학인스님들이 ‘종교간 상생과 화해’를 주제로 가진 대화의 시간이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사회에는 50개 종교 500여 종파가 있다. 다종교 다문화 사회를 살면서 서로 존

중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며 “오늘 동학사를 7대종교지도자들이 찾은 것도 종교간 화합과 상생을 위한 이다”라고 말했다.

가톨릭 김희중 대주교는 “성직자의 길을 택했다면 나머지 가치는 온전히 포기하고

사찰들며 종교 상생 의지 다져

학인들에게 ‘수행의 길’ 당부

질의응답 통해 ‘화합 지혜’ 전해

수행의 길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교지도자들의 격려말씀 이후에는 학인스님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동학사 승가대학원 상법 스님은 종교지도자들에게 종교간 갈등 해결의 지혜를 물었다.

김희중 대주교는 “종교간 일치·화합은 불가능하다”며 “자기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종교간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도 “웃만 다르지 각자가 하는 이야기는 모두 같다. 모든 성



4월 17일 열린 7대종교지도자와 동학사 학인 스님의 ‘종교간 상생과 화해’ 대화의 시간. 김희중 대주교(사진 맨 오른쪽)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의 근본정신은 하나”라고 설명했다.

최근덕 성균관장은 “종교간 화합은 불가능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다. 그것이 평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동학사 학인스님의 종교의 사회참여와 불교의 사회참여 정도를 묻는 질문에 “종교는 성직자 중심이 아닌 대중과 부처(혹은 절대자)를 잇는 것이 중요하다. 중생을 떠난 종교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주교는 “종교인이 사회참여에 힘쓰면 일반 사회인이나 사회개혁가들과 무엇이 다른가? 사회참여도 좋지만 종교 고유의 본성을 망각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종교지도자들은 5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KCRP 주최로 진행되는 종교화합주간에 이웃종교화합선포식에 참여해 종교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동학사=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진각종 춘기 스승강공 봉행

‘계율’ 주제... 18·19일 양일간

진각종 춘기스승강공이 4월 18·19일 양일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진각종의 계율’을 주제로 열렸다.

성조 총인은 춘기스승강공 법어를 통해 “계율은 개인에 있어서는 수행의 길을 항상 바로 잡게 하고, 종단에 있어서는 화합과 질서를 올곧게 하는 법”이라며 “종단이 계법을 반듯하게 지키고 세워갈 때 종단의 역사는 흥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상을 경계하고 공익을 위하여 의뢰하지 않고 자주성을 발휘하여 수행하고 교화하는데 계율은 바로 사계 된다”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조건이 있더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인과법문으로 보고, 당체법문으로 삼아서 교화 일선에서 수행과 교화에 정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춘기스승강공은 무진설법전 예참불사를 시작으로 개회불사, 법어, 주제강론, 교법강론, 삼밀관행, 종정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신종일 기자



‘진각종의 계율’을 주제로 4월 18·19일 양일간 총인원에서 열린 진각종 춘기스승강공

상용의식, 승가대학 필수교과목 된다

조계종 교육원 염불지도위, 4차 회의서 결의

내년부터 승가대학 필수 교과목으로 ‘불교상용의식’이 개설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은 4월 16일 서울 홍원사에서 제4차 염불교육지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도 승가대학 필수 교과목으로 ‘불교상용의식’을 신설할 것과 교육 교재 개발, 교수 확충 등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불교상용의식’ 교육은 기본 교육기관 3~4학년 학인을 대상으로 4학

기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염불교육지도위원장 동주스님은 “이제라도 학인들의 교육과정에서 상용의식이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된 것은 다행인 일”이라며 “종단의 관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이후에는 한글염불 대중화를 위한 교수단 연수가 진행됐으며, 향후 지도교수들은 상반기 교육기관을 순회하며 염불 교육과 평가를 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불교계, 종교인 과세 해법 모색

종교인 과세에 대해 불교계가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장 자승)는 4월 18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종단협 회원 종단들은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 납부가 아닌 부동산과 영리 사업에 대한 문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

으며, 이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각 종단 차원의 과세 현황 파악과 입장 정리 등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불축행사 불행의 건 △제3차 중구 세계불교포럼 보고의 건 △유사 종단 활동보고의 건 등이 주요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결의됐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김연아나무 마가목



숙취해소

- ◆ 백세팔팔 : 국내특허 10-07071300(마가목 차음료) 상표출원번호 : 40-2012-0015906
- ◆ 청 명 천 : 국제특허 PCT/KR2004/003474(숙취해소) 국내특허 10-0663952(숙취해소)
- ◆ 갯바위 생식 : 식사 대용식
- ◆ 오채 단이슬 : 국내특허 10-0663948(아채 미용음료)
- ◆ 오과 단이슬 : 국내특허 10-0663947(과일 미용음료)

회원 모집



자/비/실/천 갯바위자비회

www.g-jabi.or.kr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476번지

☎ 053)311-2675 (대구사무실)



불자를 위한 불자의 기업 주식회사 자운 www.jawoonfood.co.kr 전국총판 / 대리점 모집 TEL 053)311-2676~7